

자기 세대를 섬긴 다윗과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성경말씀: 시51:1-13

우한 폐렴 코로나 19 사태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확진자가 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까지 유튜브 실황 중계 지난 5주 동안 광야 시리즈, 모세와 이스라엘, 엘리야, 예수님과 바울,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다 광야를 체험하였다. 영혼의 어두운 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 특히 대한민국 하나님의 강권적 섭리가 없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벗어나기 힘들다. 기독교 탄압 불 보듯 뻔하다. 피폐한 광야를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아이들을 둔 부모들, 손자 손녀들을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상을 잘 파악하고 살아야 한다. 롬12:2

오늘과 다음 주는 광야 시리즈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자기 세대를 섬긴 다윗과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죽은 사람, 무슨 의미인가? 다음 주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였나?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자기 세대를 섬기는 일

세 달 전쯤에 어떤 자매님이 연락을 함, 10-15년 쯤 전에 알던 분, 초창기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쓰던 분, 그런데 지난 8-9년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다.

목사님, 어디에 사는 000 자매입니다.

안부 인사와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작년 조국 사태 때 사람들이 홍위병처럼 조국의 불법을 수호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알아보던 중 제가 모르고 지지했던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목사님 교회의 여러 강사님들의 유튜브 말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올려주셔서 감사드리며, 기도하다 생각나서 문자드립니다.

목사님과 교회 가정 모든 곳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을 받고 제 아내와 대화,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자랑함. 진리를 발견했다고 함.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회 정치 문제로 오면 좌익 사상을 버리지 못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함, 정교분리,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주장, 그리고는 나름대로 좌익 사상을 펼치고 또 투표도 함. 인지 부조화의 결과, 요즘 김مام준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인생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의 오른쪽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인간을 속박에서 자유로 이끄는 길, 모든 것에서 나타나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인지 부조화의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한 자매님이 이렇게 진리와 진실 앞에 내 것을 던지고, 좌익 사상을 버리고 무릎 꿇었다는 점에 감사함

그런데 그 뒤로 몇 차례 더 문자가 옴. 그 동안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절실히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올바른 것을 외치고 있다. 구원과 비슷하다. 사마리아 여인 구원받은 뒤 온 동네에 외침 문제: 듣는 사람들(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음. 그러나 올바른 국가가 있어야 나와 아이들이 믿음 생활 할 수 있기에 외침, 거의가 다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듣지 않음

다시 문자가 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윗의 사례를 들

목사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모임방에 방금 올린 글 보내드립니다.

-자기 세대를 섬긴 다윗 - 그리스도인의 사회 정치 참여 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지내는 그리스도인에게 선거를 위해 현 좌파 정부에 대한 문자를 보냈더니 답변이 좌파나 우파나 세상 정부는 다 마귀 세력 하에 있는 것이 아니냐 라며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새 하늘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왜 성경적인가 설명하고 설득하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았는데, 순간 떠오른 말씀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 사도행전 13:36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혔다.

"다윗도 자기 세대를 섬겼다!"

구한 말 일제시대에 크리스천들은 교육과 의료 선교로 자기 세대를 섬겼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이 바로 자기 세대를 섬기는 것이 아닌가?

정확히 이 성경 구절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더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통해서 이 세대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등이 합법화되어 우리와 자녀세대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그 지인께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이해하시더군요.

그리고 이 구절을 다시 찾아보았더니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여기에 올리며 함께 공유합니다. (* 다른 성경,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완전히 다른 뜻 조금 뒤 설명)

인본주의자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라 속이며 전 세계에 다 퍼뜨려서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여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늦게야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창조과학회 등을 만들어 진화론에 대항했지만 이미 그 거짓말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온통 진리처럼 정착되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나 우리나라나 이미 그런 것은 성적 취향의 문제라는 인식이 다 퍼져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이 뒤늦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파이팅하면 바른 것을 알리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기존 성경을 쓰는 교회에 다니지만 그럼에도 올바른 성경을 알리고 진리를 지키며 살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중요하다.

(*) 행13:36-37,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다른 성경,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킹제임스: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세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성경: 자기 시대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 즉 하나님을 섬겼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매우 명확해집니다.

마5:13-14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동시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16절 참조

즉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구원받아 세상과 동떨어진 데서 살며 희희낙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국가, 여기에 무언가를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러하였습니다. 요한 칼빈이 그러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러하였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한국 초창기 선교사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러합니다.

3.13 운동 33인 중 1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굳건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세대를 섬겨야 합니다.

단순히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국가의 윤리 도덕,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세대를 섬겨야 한다.

다윗의 예

다윗도 우리처럼 육신의 정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인생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삼하11장, 그는 중년을 보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음행과 살인죄를 짓습니다.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합니다. 그리고 일이 알려지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데려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듣지 않자 그의 대장인 요압에게 그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편에 보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일을 감행하였습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성냥불처럼 조그맣게 정욕의 불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끄려고 하다 보니 그 작은 불이 산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대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형벌은 면제하지 않으신다. 그 결과 태어난 아들이 죽고 만다.

이런 사건을 통해 다윗은 시편 51편을 기록한다.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죄인이라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시51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짓고도 자기 세대를 섬겼는지 보려고 한다.

자세한 강해를 하려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

1-2절: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소서

3절: 내 죄를 시인한다.

4절: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5절: 사람의 상태

6절: 하나님이 보시는 것

7-9절: 간절한 소원

10절: 깨끗한 마음, 올바른 영 창조

11-12: 간구, 기쁨과 즐거움, 죄가 있으면 불안하다.

13절: 드디어 자기 세대를 섬기는 것 나옴,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겠다.

누가 범법자인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 주의 길들: 올바른 것들 간단하게 말하면 십계명(출20):

1-3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4 우상은 절대 안 된다. 7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8-11 몸을 위해 일 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

1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3 너는 살인하지 말라.

14 너는 간음하지 말라.

15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16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7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자유 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

여기에 약자 배려, 물론 하나님을 섬기려면 신약 시대에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을 범법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 세대를 섬긴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할 일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가치들을 가르치고 알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섬기는 것이다.

1.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이 전해 준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준 성경 개역성경 좋은 성경이다. 주님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더 좋은 성경이 있다.
올해는 마제스티 판 완성, 보급, 성우 녹음, 무료 앱 등
2. 주일 학교 못하는 교회, 부모들의 걱정,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 12학년 교과과정, 성경과 역사, 그리고 기본적인 국가관까지, 이것을 계획하고 가르치고 동영상, 교육 과정 완성, 어디서나 무료 교재, 영상 접근하게, 주일 학교 따라 오게
초신자 성경 공부 교재, 영상,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성경 등
3. 역사, 경제, 사회, 문화 공부, 저명한 분들 초청해서 1학기 분량의 기본 소양 강의, 영상
4. 학생들, 청년들이 모여야 한다. 그리고 찬양 등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박형욱 형제, 이승만 교향곡 등
5. 물론 목사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 및 강해

우리가 해야 할 일

1. 우리 교회의 이런 가치, 이 세대를 섬기려는 하나님의 가치가 좋다고 생각되면 여기로 모여야 한다.
좋은 품성, 재능,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사람이 일을 한다.
다윗이 자기 세대를 섬기려 하자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
대상12:22, 그 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시금석: 사람들이 모이는 것
행2:47,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행 2:47)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다행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더 크게 일어나야 한다.
2. 사람이 모이면 이 일을 위해 재물을 투자해야 한다,
다윗은 자기 시대에 성전을 지어 자기 세대를 섬기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음
그래서 그는 다가오는 세대들을 위해 성전을 짓기로 하고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함
대상22장 성전 건축 예비
대상23-27장: 레위 사람, 제사장, 음악가, 문지기, 군사들 정비
28-29장: 구체적으로 헌물을 모음
대상29:10-19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멀티미디어 제작, 일꾼,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4층 옥상 부분 개조해서 멀티미디어 소강당 확보 등

결론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복음 선포, 민족중흥,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 세대를 섬기고 가려 합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여기로 모이기 바란다. 좋음 품성의 바이블 빌리버
나는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쓰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한다.

<정동수 목사님께>

정목사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윤근채목사입니다. 목사님께 글을 쓸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많이 기뻐하시는 분께 글을 쓰게 되어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작년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됨과 동시에 신경호, 최문선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분들이 사랑침례교회 예배실황을 꼭 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개척교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러웠나 봅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도 사랑침례교회에서 소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우선 정목사님께 이메일을 써 보라고 권면을 하네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을 띄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오클랜드세우신침례교회'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시티 밀포드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밀포드 지역에 있는 해양소년단 교육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포함 15명 정도가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본문으로 주일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2019년 11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신경호, 최문선 부부를 알게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지 7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신경호형제의 어머니는 지금 사랑침례교회 성도님 이시구요.

저는 2005년 한국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학교는 대전침신에 편입했다 졸업을 못하고 나중에 LBU(미국 루이지애나 침례신학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파주에 있는 새중앙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13년을 사역을 하다, 2012년 12월 안식년차 뉴질랜드에 왔다가 영주권까지 취득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에 마음을 두고 교회사역은 하지 않고 비즈니스 미션을 하면서 페인트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구요. 지금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경에 구원의 확신과 기준에 대한 성경 연구를 하다가, 조직신학 강의를 올라와 있는 여러 동영상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정동수목사님의 킵바이블 강의를 며칠간 듣게 되면서, 아무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구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구하고 싶어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신경호, 최문선 부부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분들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매일 아침 성경을 정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개역성경을 60회 이상 정독을 해 왔는데, 이런 저에게 킹제임스 성경은 너무나 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제가 봐 왔던 개역성경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죽으라면 죽은 시늉까지 할 만큼 순종해 왔는데,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다니, 또 2만 여 곳이 변경되었다니, 게다가 반평생을 방언을 하고 각종 은사를 사모하며 사역을 해왔던 저로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왜 안 하는가?' 지금도 몇 번씩 읽으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마치 뭔가에 속고 살아온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저 스스로 눈물로 다지는 것은, 변경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숨결이 그대로 담겨있는 성경을 배우고 더 알고자 하는 노력은 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 제가 우파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강진 출신입니다. 대학은 광주에서 조선대학교를 다녔고요(2년후 신학교 편입). 저희 부모님 들은 대선/총선 후보는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민주당을 찍던 분들이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해 왔구요. 이승만대통령님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 제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최근 광화문 집회와 정목사님의 정치설교 또한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 다음 세대 세우기 입니다. 이를 위해 개척 때부터 전교인의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척부터 쭉 해오던 집중사역 중 하나는 매일 성경 읽는 습관들이기 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매일 성경을 읽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 이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습관 들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다음세대에 대한 비전이 교회개척으로 이어졌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성경 읽기와 함께 성경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먼저는 저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해준 신경호, 최문선 부부에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든든한 동역자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정동수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성경번역사역에 힘써주시고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상이 넘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진리와 성경을 알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자 위해 십자가를 감당해주신 나의 신랑 예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목사님. 초면에 두서없이 글이 장황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 가다 보니, 여기 오클랜드에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분들이 있겠다 싶어 마음이 간절해 집니다. 저희 교회도 소개 가능한지 살펴봐 주시고 답장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늘 담대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밀포드에서

윤근채 목사